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과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금액>: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있기에 고등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편이자 그대로 실상이며 진실이니 그대로 자기 주인공을 믿고 한번 실천해보는 노력을 하세요.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문 큰스님께 큰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맡기면 고가 아니라는 큰스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생각도 죽음이 있다는 생각도 다 나와야 하며, 후생의 내 생활은 현재의 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 또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다 믿고 맡기는데도 어느 때는 자식을 때문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바람은 자식들이 잘 살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 때문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학교생활에서 그렇지를 못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너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주어도 그것을 듣는 상대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수십번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심정입니다. 큰스님, 다 믿고 맡기는데 자식 일은 힘이 듭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께 이런 글을 올릴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답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식들이 섬세하게 하고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지 말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며, 모든 일들을 주인공에 맡기고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써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곧은 가족이 화합하게 되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여 자식들이 공부도 안하고 말쑥한 피운다 할지라도 말로써 욕박질러서 고치려 하지 말고, 이것 또한 주인공에 맡겨 놓고 자상하게 대하면 자식과 나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겠지만 하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착한 자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야 잘 산다는 그런 생각도 놓으세요. 사랑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맡겨놓고 지켜본다면 모두가 한 예 나지가 되고 한마음이 돼서 그저 전력이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아무리 많은 방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다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편안하려면 자식도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편안하게 돼야 나도 편안하죠. 자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 잘되려고 내가 편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잘못되게 나가는 것 같

16면으로 계속

자기 팔자운명 자기가 지어잡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문 불교신자가 아닌 새언니로부터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저도 잘 몰라서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지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함께 공부했으면 하기에, 새언니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철 나면서 이 도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간다면, 언제 다시 와서 실현할 수 있을는지 도저히 기약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나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철이라 하였습니까라는 저 틀에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 뿌리가 아주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있어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나무의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뿌리가 죽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몸을 벗는다고 해서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틀이 아닌 것이니라. 본래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느니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죽으면 그 의식이 살아있을 때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니, 내가 살면서 온갖 탐진치에 의식들이 다 물들어 있다면 미혹한 곳을 찾아 해매게 될 것이고, 내 의식이 밝고 자유로워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안다면 더 차원을 높여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을 하며 살았는가가 하는 것이 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와서 한 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고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캄캄하게 살아야 합니까? 캄캄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살고, 잠도 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하고 단단하다 할지라도 한 순간의 꿈입니다. 한 순간의 꿈에서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난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삶에서, 윤회의 굴림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 하고도 걱정 안하는 방법

문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을 하고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께서는 언제나 관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큰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큰스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답 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답을 기다리는 것과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 인생에서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명리에서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답 자기의 팔자운명은 자기가 지어 가는 것이 어디서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움직여 있고 차단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괴로운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어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 지난날 기록된 자기 삶의 모습 나오는대로 되돌려 놓아야 소멸

같이, 지금 내가 관을 하고도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느냐는 편지를 나에게 썼지? 그리고 나서서 이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네 안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펴서 편지를 부치고 답장이 오는 것을 기다려다 보면 답장이 오듯이, 무슨 문제가 있든 나의 근본이라고 하는 우체통에 편지를 써서 넣으라는 거야. 그런데 우체통에 정확하게 넣어야 크게 전달이 될 텐데, 우체통에 넣기도 전에 '넣을까, 말까?' 근심 걱정을 하고, 넣고 나서도 '답장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한다면 안 되겠지? 그냥 내 마음의 우체통에 탁 넣고는 돌아서는 거야. 그래야 그게 근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답장이 오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믿고 맡겨놓아야 그게 자주 연결이 되면서 나의 영원한 친구인 주인공과의 길이 넓고 빨라지게 되는 거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우체통에 넣는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해, 알았지?

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요.

마음이란 것은 깊고도 신묘합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무한관대함을 가졌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업고(業苦)를 다 저장해 있기도 하니깐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마음은 꼭 카세트 테이프에 수록된 녹음 내용과 같습니다. 즉 잠재의식이라는 녹음 테이프에 우리가 수백년 살아온 과거 전생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었든, 악한 것이었든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감겨 있던 것이 하나 둘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연방 기록하면서 연방 풀려나오는 것이요. 기록되는 것은 오늘의 삶이요, 풀려 나오는 것은 지난날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록했던 대로 오는 영향을 받으면서 사니까 자유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다른 내용을 끊임없이 기록하면서 사니까 다음 생에서도 자유롭기는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아이구,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운명은



그림 · 최주현

왜 이리까지 가혹한가 하지마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가혹하다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모르고 지어 놓은 그대로일 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이기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자기 탓인 줄을 뼈아프게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내게서 나온 문제이니 내가 풀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모든 것은 과거에 녹음된 테이프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대로 그 자리에서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내 나온 것이 무마될 뿐 아니라, 녹음되어 있는 것도 소멸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팔자 운명은 고정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녹여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개혁해 나갈 수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할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년 또는 전국 어느 사할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할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죽, 종중, 묘지의 혁신
-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면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을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형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희망지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속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정면 시장리 51-35번지
- TEL : (0417) 584-6674~6 FAX : (0417) 584-2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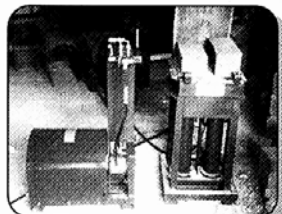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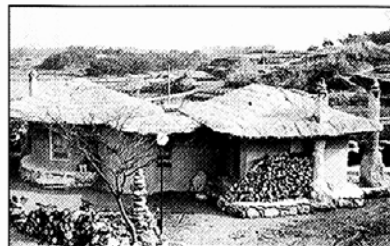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 모델 B : ₩4,300,000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연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 ① 황토 주택 토굴시공
- ②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③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 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검정콩
'金檀花'화



"해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힘소 배설물처럼 자기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대보다 더 쓰러라니까"

웃나무와 소나무의 울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울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그다가 건조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속성 기간이 촉박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울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울진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여성용이 1월도 인터뷰 내용 중 ·
"신식 검정콩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교향은 지금, 오선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재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① 상담문의 ☎ (02)3437-8282 ①